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장 수 지

서울방화초등학교 / 전문상담교사

남 숙 경[†]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부교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구 남, 여 중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8.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표현불능증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감정표현불능증이 매개하고 이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 자살생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감정표현불능증으로부터의 자살생각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감정표현불능증을 통해 자살생각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중학생

* 본 연구는 장수지(2020)의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남숙경,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Tel: 02-910-6371, E-mail: sknam@kookmin.ac.kr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당 10대의 자살률은 5.8명으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나아가 자살성공의 단계를 거친다(Nock, 2008). 청소년 자살은 70~80%가 자살을 예고하는 행동 단서를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이 자살을 떠올리는 시점에서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서예스더, 2010). 국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자살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자살로의 위험을 이해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김지현, 2016; 김현순, 김병석, 2007; 박복순, 2011; 송미아, 2020; 전미숙, 2017). 따라서 청소년 자살 예방 개입의 방안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갑숙, 박치홍, 2015; 오현주, 강문희, 김명숙, 오경옥, 2017).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부(2013)의 자료에서도 중학생의 경우가 자살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혀낸 바 있고, 14~15세를 전후하여 청소년 자살 문제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난 바 있다(이홍식 등, 2008; 함경애, 천성문, 2014). 더욱이 한국청소년상담원(2007)에서 조사한 결과, 51.2%가 자살생각을 처음으로 한 시기가 중학생 때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자살생각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환

경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족 환경적 요인을 중요한 변인으로 들 수 있다(류희정, 2010). 자살생각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들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무시하고 독립심이나 자율성의 표현을 차단하는 행동을 통해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다(Barber & Harmon, 2002). 김아름이(2018)는 그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부모가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아영(2014) 또한 부모가 애정 철회, 죄책감 유도 등의 행동들을 통해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것은 자녀의 자살생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살생각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자녀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며(이경진, 조성호, 2004; 한아름, 한세영, 2017), 이는 자녀의 정서발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은 자녀가 스스로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만들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감정표현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손민경 외, 2013).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재화 문제 중 하나인 위축 등(이은경, 2011; 최태산, 김자경, 2015)과 관련이 있

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안희정, 2012). 즉 자녀는 부모를 통해 정서적 반응과 적절한 정서표현을 경험하고 학습하는데, 만약 부모가 자녀의 심리를 통제하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어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왜곡해서 평가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심리적 자율성 발달을 저해시켜 자녀가 주도적으로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정윤주, 2004; Barber & Harmon, 2002). 이와 같이 자신의 신체감각과 정서를 변별하기 어려워 정서 조절에 중요한 정서 인식 능력과 상징적 표상 능력의 결함으로 언어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곤란을 보이는 성격 특징 및 상태를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라고 한다(Sifneos, 1973). 선행연구들(남정미, 2021; 정소이, 2019; 한은진, 2015)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점수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하기에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자살생각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의 또 다른 변인 중 하나이다.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개인에게 신체화뿐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최경민, 2013).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연관이 있는 정서적 문제에는 자살생각이 있는데, 이미라(2016)는 알코

울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게 나타난 사람이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김가영(2008)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으면 자살생각이 강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기에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높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생각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살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Taiminen, Strandberg와 Kujari(1996)의 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은 것이 자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가 항상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 관계를 조절하는 또 다른 변인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자살생각을 낮출 수 있는 보호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경아, 2019; 김지영, 2014; 김현순, 김병석, 2007; 박재연, 2009; Johnson, Wood, Gooding, Taylor, & Tarrier,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

(alexithymia)과 자살생각 관계를 조절하며 자살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이다. 즉 자신에 대한 어떠한 기준과 평가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이은경, 2011).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최은영, 최인령, 2002), 선행연구들(김경아, 2019; 김상열, 2014; 윤성호, 2010)을 통하여 자살생각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홍영수(200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문제 상황에 있을 때 역기능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지영(2015)은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진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박병금(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대해 완충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김보영(2008)은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게 되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극단적으로 위험행동을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며 자살생각을 줄어들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 관계를 조절하여 자살생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한 변인들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자아존중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살생각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변인이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인이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매개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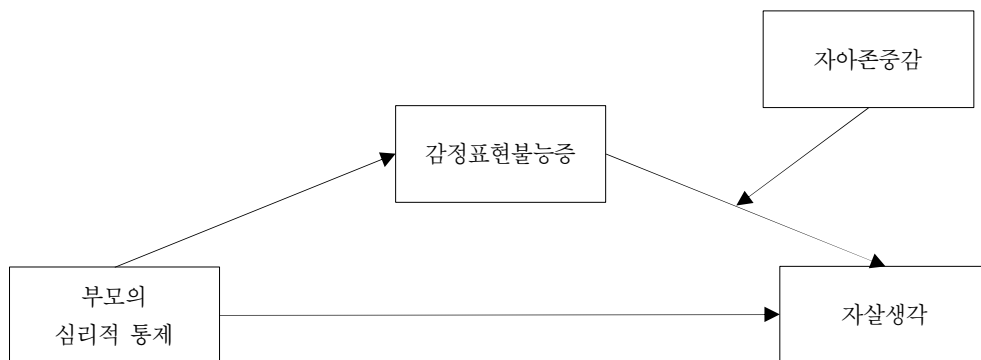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감정표현불능증,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모형

있지만,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통해서도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나아가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의 관계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 사이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 관계를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매개하고, 이러한 매개관계를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 중 307명의 전국구의 중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 5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마크로밀엠브레인 패널 중 중학생에 해당하는 그룹에서 일부를 랜덤 추출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 문항을 제시하기 전에 설문문의 응답내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읽도록 하였다. 설문은 익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별과 나이 이외의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50명(48.9%), 여학생이 157명(51.1%)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은 4명(1.3%), 2학년은 78명(25.4%), 3학년은 225(73.3%)명이었다.

측정 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Barber(1996)가 제작한 심리적 통제 척도 청소년 자기보고용(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을 최명진(2010)이 번안한 것을 조서경(2014)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CS-YSR는 부모의 자기표현 제한(3문항), 감정 불안정(3문항), 비난(3문항), 죄책감 유발(2문항), 애정 철회(3문항), 불안정한 감정기복(2문항)이라는 여섯 하위 요인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자유를 구속하고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서경(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하위요인으로 나눠서 보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보아 PCS-YSR 총점만을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척도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 Ryan와 Bagby(1985)가 개발한 이후 이양현, 임효덕과 이종영(1996)이 번안하고 정운선, 임효덕, 이양현과 김상현(2003)이 타당화한 한국판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척도인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척도(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인식의 어려움(7문항), 감정기술의 어려움(5문항), 외부지향적 사고(8문항)를 하위변인으로 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채점 문항은 3문항이 있고,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ooiman, Spinoven, Trijsburg(2002)와 권소영, 곽자랑, 김비아, 이동훈(2019)의 연구에서는 TAS-20K를 활용할 시 각 하위척도와의 관계를 살펴기보다 총 점수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총 점수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운선 외(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척도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는 Harlow, Newcomb과 Bentler(1986)이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Scale: SIS)를 김형수(2002)가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안향과 김해란(2018)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IS는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경험, 인생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과 자살 시도를 묻는 다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역채점 문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향과 김해란(2018)의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 문항은 5문항이다.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민지희(201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적사항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자살생각,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PROCESS macro의 4번 모델을 이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eacher, Rucker와 Hayes(2007)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시에는 표본 수를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대로 5,000번으로 정하였고, 신뢰 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여섯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욱이 SPSS PROCESS Macro의 1번 모델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일곱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14번 모델을 사용하여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아존중감이 상호

작용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존중감이 조절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결 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 자살생각,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자살생각,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살생각($r=.5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r=.53, p<.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자살생각($r=.6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r=-.41,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r

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 자살생각,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1	2	3	4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1			
2. 감정표현불능증	.53**	1		
3. 자살생각	.57**	.61**	1	
4. 자아존중감	-.41**	-.53**	-.63**	1
평균(M)	2.37	2.86	2.38	3.16
표준편차(SD)	.86	.59	1.15	.73
왜 도	.44	.17	.37	.08
첨 도	-.31	-.34	-.89	-.30

주. ** $p < .01$

= -.53, $p < .01$)과 자살생각($r = -.63$, $p < .01$)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검증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중학생의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7$, $p < .001$).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자살생각의 설명력은 32%($R^2 = .32$)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beta = .53$,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의 설명력은 28%($R^2 = .28$)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통제된 상태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beta = .43$, p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N=307)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2	F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살생각	.76	.06	.57	12.06***	.32	145.43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 불능증	.36	.03	.53	10.87***	.28	118.13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살생각	.45	.07	.34	6.82***	.46	128.61
감정표현 불능증	자살생각	.85	.10	.43	8.72***		

주. *** $p < .001$

<.001),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것이 나타났다.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했을 때보다($\beta=.57, p<.001$)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34, p<.001$). 이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46%($R^2=.46$)이다.

다음으로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 →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 자살생각으로 가는 간접효과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이 .21에서 .41로 나타났고, 이 범위는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자살생각으로 가는 직접효과는 95%의 신뢰구간에서 .32에서 .58로 나타났으며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부분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감정표현불능증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표 3. 감정표현불능증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307)

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자살생각)	.77	.06	.63	.88
직접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자살생각)	.45	.07	.32	.58
간접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 감정표현불능증 → 자살생각)	.31	.05	.21	.41

주. LLCL: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L: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표 4. 감정표현불능증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단계	투입변인	비표준화 계수		β	t	R^2	ΔR^2
		B	se				
1	감정표현불능증	.74	.09	.38	8.08***	.51***	
	자아존중감	-.67	.07	-.43	-9.13***		
2	감정표현 불능증 X자아존중감	-.26	.09	-.11	-2.80**	.52**	.01**

주. ** $p < .01$, *** $p < .001$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변수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산출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조절변인인 자아존중감을 각각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증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조절변인인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 때 나타난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52, p < .01$). 이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였다.

또한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대로, 조절변인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과 $\pm 1SD$ 값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를 나타낸 단순회귀선이 자아존중감의 평균값과 $\pm 1SD$ 값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조절변인인 자아존중감을 각각 고, 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

표 5. 자아존중감의 조건 값에 따른 상호작용의 유의성 검증

	b	se	t	LLCL	ULCL	
자아존중감	-1SD	.92	.11	8.58***	.71	1.13
	M	.79	.09	8.54***	.60	.97
	+1SD	.55	.12	4.67***	.32	.79

주. LLCL: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L: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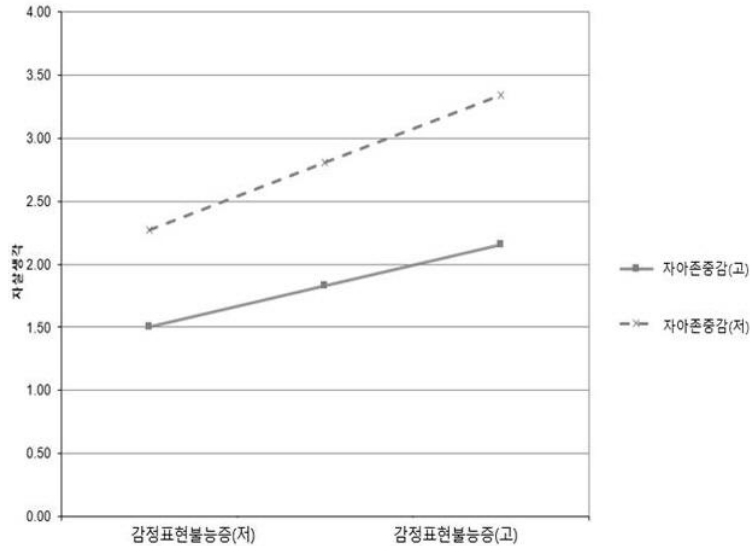


그림 2. 감정표현불능증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식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간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정도가 크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아도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으로 인한 자살생각의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종속변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조절된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결과 앞서 살펴본 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14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경로		<i>b</i>	<i>se</i>	<i>t</i>
	상수	2.01	.08	24.06***
부모의 심리적 통제	→ 감정표현 불능증	.36	.03	10.87***
	상수	1.48	.15	9.82***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자살생각	.36	.06	5.95***
감정표현 불능증	→ 자살생각	.51	.10	5.41***
자아존중감	→ 자살생각	-.59	.07	-8.41***
감정표현 불능증 x 자아존중감	→ 자살생각	-.25	.09	-2.83**

종속변인: 자살생각					
조절변인	수준	Effect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자아존중감	-1SD	.24	.24	.15	.35
	M	.20	.20	.12	.29
	+1SD	.12	.12	.03	.21

주. LLCL: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L: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 $p < .01$, *** $p < .001$

Hayes(2015)는 조절된 매개지수는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수가 유의하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의 신뢰구간이 -1SD, 평균, +1SD일 때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의 조절된 간접효과의 크기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 간에 관계에서 감정표현 불능증(alexithymia)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주요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자살생각은 모두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는 Eisenberg, Cumberiland와 Spinrad (1998)의 연구에서 자녀의 정서에 대해 갖는 부모의 반응이 자녀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인식과 감정표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여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살생각과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가 심리적인 통제를 많이 한 자녀는 우울이나 위축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이게 된다는 김양은(2013)의 연구와 부모의 애정이 부족하다고 지각하거나 부모로부터 공격적인 양육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Friedrich, Reams와 Jacobs(198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감정표현불능증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높은 부정정서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기에 자살생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높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자살생각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Jacobson, Marrocco, Kleinman, & Gould, 2011)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반

면,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 자살생각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감정표현불능증 성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아진다는 김현아(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여지영(2015)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함께한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김가영, 2008; 김아름이, 2018; 이아영, 2014; 정소이, 2019; 한은진, 2015)를 지지하는 것으로,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의 관계만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증가하게 되고, 높아진 감정표현불능의 수준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통제를 받으며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무시한 채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는 하기에 자녀로 하여금 충분한 독립과 심리적 안정을 갖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과 같은 심리내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에 상관없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을수록 자살생각도 증가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정도가 작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김경아, 2019; 김상열, 2014; 윤성호, 2010)에서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에서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이 자살생각을 조절해주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었고, 이는 자아존중감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느끼게 되며, 나아가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존중하는 태도이자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지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자녀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조정하려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통해 자살생각으로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된 매개효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자살생각을 낮출 수 있는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한적이었던 가정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 심리적 요인인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통한 구조적 경로를 탐색하였고, 이를 통해 중학생의 자살생각의 원인 및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특히 정서발달에 관한 관심과 지식의 부족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 부모의 권위와 힘으로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서숙경, 김은경, 2012) 우리나라 가정 환경적 맥락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변인은 자녀의 내재적 혹은 외재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보았다는 점은 매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에 매우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으로 위축

되고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지각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높아지는데, 이는 부정적 정서를 다룰 수 있는 정서적 전략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문제대처에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자살생각을 다룰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지각 경험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담자가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현의 어려움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수용과 공감적 반응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정서인식과 표현의 학습을 일상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정서적 전략을 함께 탐색하여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정서 인식과 표현을 넘어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사회적 기술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낮추기 위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살생각에 있어 중요한 완충역할을 했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한 집단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생각이 높은 중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더욱이 상담 장면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중학생이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이라는 변인이 갖는 부정적인 자극의 우려로 인하여 최대한 척도의 문항수를 줄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표본 모집에 대한 제한이 있어 온라인을 통해 307명의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설문 응답의 연구 결과를 모든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표집을 확장시켜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참여자의 낮은 자기 이해도로 인한 왜곡된 응답과 응답 시 확대 및 축소하여 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한 심층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해 측정할 때 부와 모를 분리하여 보지 않았기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와 모를 분류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경우 여섯 개의 하위요인(부모의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안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으로 이루어졌는데, 중학생 자녀의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과 자살생각에 있어 이러한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에 대해 부와 모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위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2013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서울: 교육부.
- 권소영, 콕자랑, 김비아, 이동훈 (2019). 한국대 학생의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 상호독립적 자기관 결핍에 따른 정서표현 양가성 및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2), 101-118.
- 김가영 (2008).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 및 감정표현불능증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숙, 박치홍 (2015).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차를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2(1), 115-130.
- 김경아 (2019). 청소년의 가정 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자아존중감,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2008).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열 (2014). 기독교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성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름이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은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4).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된 우울 및 불안매개효과 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6). 피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조절 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보호학회 아동보호연구, 1(1), 51-68.
- 김현순, 김병석 (2007).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801-818.
- 김현아 (2017). 감정표현능력이 여자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조절효과.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남정이 (202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감정표현불능증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희정 (201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치유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지희 (2016). 자아성찰적 표현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서전쓰기와 미래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6-522.

- 박복순 (2011). 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 (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 사에스더 (2010). 부모 및 친구관계 정서적친밀도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후유증이 언급된 자살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숙경, 김은경 (2012).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6(1), 95-109.
- 손민경, 김경화, 김혜서, 백소은, 이병호, 정혜정 (2013). 셀프리더십과 전공만족도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구강보건과학회, 1(1), 51-61.
- 송미아 (2020).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의 매개효과와 심리적 수용의 조절효과. 한국상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향, 김혜란 (2018). 청소년의 대인관계위기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7(2), 171-188.
- 안희정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 수치심 및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청소년 통계. <https://www.mogef.go.kr>
- 여지영 (2015).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 강문희, 김명숙, 오경옥 (2017). 전통놀이 활용한 융복합 프로그램이 농촌 여성노인의 우울, 소속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413-421.
- 윤성호 (2010).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미라 (2016). 알코올중독자의 감정표현불능증과 내현적자기애 성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아영 (2014). 부모의 지지와 통제 및 학교생활 적응이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의 개발과 타당도. 大韓神經精神醫學會, 35(4), 888-899.
- 이은경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이홍식, 김동현, 김용구, 남윤영, 류성곤, 박병철, 배재남, 서동우, 오강섭, 우종민, 유승호, 유영권, 육성필, 이광자, 이동우, 이명수, 이병철, 이분희, 이영문, 이준영, 장창민, 장훈, 전우택, 정상혁, 조성진, 조홍식, 최영민, 하상훈, 한성열, 함병주, 허태균, 홍강의 (2008).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한국자살예방협회.

- 전미숙 (2017). 자살예방 통합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주간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정소이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신체화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감정표현 불능증의 매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운선, 임효덕, 이양현, 김상현 (2003). TAS-20의 한국판 3종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비교. 한국정신신체의학, 11(1), 77-88.
-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아동이 행동문제-아동의 성과 또래 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조서경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적대적 의도귀인의 매개효과와 공격성에 대한 또래 규범적 신념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민 (2013). 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감정표현불능증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진 (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최인령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韓國學校保健學會, 15(1), 63-72.
- 최태산, 김자경 (20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368-384.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7).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한아름, 한세영 (201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2), 1-19.
- 한은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경애, 천성문 (2014). 청소년의 자살행동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573-596.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및 자기존중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5(2), 153-181.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Friedrich, W. R., Reams, R., & Jacobs, J. (1982).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02-407.
- Harlow, Newcomb, & Bentler.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Psychodynamics and Psychopathology*, 42(1), 5-21.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 Jacobson, C. M., Marrocco, F., Kleinman, M., & Gould, M. S. (2011). Restrictive emotionality,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6), 656-665.
- Johnson, J ., Wood, A., Gooding, P., Taylor, P. & Tarrier, N. (2011). Resilience to suicidality: The buffering hypothe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 563-591.
- Kooiman, C. G., Spinhoven, P., & Trijsburg, R. W. (2002). The assessment of alexithymia: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psychometric study of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20.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6), 1083-1090.
- Nock, M. K. (2008).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An elaborated theoretical model of the social functions of self-injury and other harmful behavior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2(4), 159-168.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fneos, P. E. (1973). The prevalence of alexithymic characteristics in psychosomatic patient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22(2-6), 255-262.
- Taiminen, T. J., Strandberg, J., & Kujari, H. (1996). Inpatient suicide on general hospital psychiatric ward.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2), 119-124.
- Taylor G. J., Ryan D, Bagby R. M. (1985). Toward the development of a new self-report alexithymia scale. *Psychotherapy Psychosomatics*, 44, 191-199.

원 고 접 수 일 : 2021. 11.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2. 17
계 재 결 정 일 : 2021. 12. 24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Alexithymia and Self-Esteem

Suji Jang

Seoul Banghwa Elementary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Suk Kyung Nam

Kookm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through alexithymi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307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on effect of alexithymi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uicidal ide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moder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exithymia and suicidal ideation was found. Third, alexithymia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uicidal ideation, and this mediation was moderated by self-estee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elf-esteem may prevent suicidal ideation from alexithymia, ultimately reducing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alexithymia.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lexithymia,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middle school students